

뉴멕시코주
한인들을 위한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Website: voice.kumcabq.com

9/10월호
2020



CONTENTS

한인회소식 | 한인 여러분!! 한인회장 민명희:2

지역소식 | 부고: 최진 전회장 : 2

VOA전재기사 | 민주당, 공화당 역사:3

민주당 전당대회 | 한인 최초 연설자 샘박:4

공화당 자문위원 | 트럼프 캠프: 리사신 :5

한국소식 | 백선엽 정군 현충원 안장: 6

미국소식 | 펜스 부통령 /전당대회 마샤 리:7

VOA기사/시 | 최우수 다큐/나의 통곡 :8

지역소식 | 레베카김 수필 수상/맥스웰사령관 :9

지역소식 | 최고의 부자 알버커키출생:10

지역소식 | 한미식당개업:11

칼럼 | 생전 처음 겪는 일 | 김기천 :12

수필 | 내가 떠날 적엔 | 이정길 :13

수필 | 마이웨이의 거짓됨 | 한승우 :14

수필 | 그렇게는 안 팝니다 | 나정자: 15

해외선교 | 선교의 길 | 김광철 : 16

교회소식 | 여선교회 마스크 500장 :17

영어상식 | 영어이야기 (10) | 이상목: 18

교계소식 | 중국 교회십자가 강제 철거 : 20

광고 | 뉴멕시코주 한인교회 안내 : 21

광고 | 한인 업소 안내:22-23

업소별 광고 | 한인 업소:24

존경하는 뉴멕시코주 한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뉴멕시코주 한인회장 민명희입니다.

멀리 고국으로부터 그리고 미국내에서 연일 전해지는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우울한 소식들로 한인 여러분들께서 근심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백신에 관한 소식이나, 타인을 배려하는 생활방역 준수,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미담들은 불행한 이들의 유일한 약은 희망이라고 했던 세익스피어의 말처럼 우리가 코로나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조만간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걱정없이 서로를 마주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한인회장으로 취임한 지 어느덧 1년 8개월이 흘러, 정관에 규정된 저의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주요행사에 관한 두가지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제 19대 뉴멕시코주 한인회장 선거는 예정대로 금년 12월 초에 치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에 저희 18대 한인회에서는 정회원 등록과 더불어 이전에 이미 정회원 등록을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유권자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기간은 2020년 9월 30일까지이며, 한인회 웹사이트 (www.kaanm.com)에서 온라인으로 등록을 하시거나, 정회원/유권자 등록지원서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오프라인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정회원 자격을 갖추신

민명희

뉴멕시코주한인회 회장



분들은 유권자 등록만 하시면 되고, 정회원 등록을 할 예정이신 분들은 유권자 등록까지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제 19대 뉴멕시코주 한인회장 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는 권리를 찾는 기회이니, 꼭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저희 한인회는 예정되어 있던 한가위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신, 저희 한인회에서는 그동안 한인회를 성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뉴멕시코주 한인 여러분께 추석 선물(송편과 과일 등)을 마련해 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가위 행사를 통해 한인 여러분들의 상심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드릴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부득이하게 내린 결정이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물은 한 가정당 하나씩 준비하고자 합니다. 9월 29일 오후 1시부터 한인회관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꼭 오셔서 선물을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 19대 뉴멕시코주 한인회장 선거가 무사히 치러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고: 최진 전회장

지난 7월 25일 최진 전 한인회장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최진 전 회장님께서 제 9대, 10대 뉴멕시코 한인회장을 역임하셨으며 뉴멕시코 한인회와 교포사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임기중 지금의 한인회관을 세입하여 자체사무실을 갖는 한인회가 되었고 차기회장 임기중 회관매입하는 과정에서도 이사로서 많은 공헌을 하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관계로 장례식은 자택에서 김기천 목사 주례로 드리고 인터넷Zoom 으로 손님은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온라인 장례예배는 8월2일 오후 1시에 실시했습니다. 아래의 부고는 French Funerals and Cremations에서 웹사이트에 올린것을 원문 그대로 소개합니다.

Jean Choi, August 9, 1945~July 25, 2020

Obituary

Jean Choi was born in August 1945 in Seoul, Korea. As a youth he was an avid boy scout through which he developed an affinity for the outdoors and camping. He graduated from

Yonsei University with a degree in Biology and served as a lieutenant in the military before moving to the United States with his family.

After polishing his English in Hawaii for six months, Jean moved to the contiguous states to attend University in the heartland where he earned master's degrees in food science and industrial management. At University, Jean met his wife, Kimberly, whom fondly remembers dozing off as he explained refrigeration to her while driving in his beat-up, blue, fastback mustang. In the early 1980s, Jean entered the restaurant business with the purchase of three Sizzler Steakhouses and moved just outside Albuquerque, New Mexico where he and Kimberly raised their three children. Jean was a devoted member and pillar of the Korean community in Albuquerque, serving as the Korean American Association president, and was a driving force in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Community Center. Jean loved his family, western movies, wearing cowboy boots, Coca-Cola, the music of Ray Charles, distance running, and anything sweet. Eating was his favorite part about traveling, checked only by the limits of the human stomach. He took tremendous pride in the accomplishments of his children, and he will be dearly missed.

Jean is survived by his wife, Kimberly; his four sisters and their families; his children, Austin, Dion, Candyce and her husband, David; and his two grandchildren, Brecken and Adair. ■



민주당은 더 큰 연방 정부와 진보적 사회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1792년, 토머스 제퍼슨과 제임스 매디슨이 추후 민주당이 되는 민주공화당을 설립했을 때, 그들은 연방 정부가 더 작은 역할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민주당은 남북 전쟁을 앞두고 1860년에 지리적으로 분열했습니다. 북부 민주당원과 남부 민주당원은 노예제도와 연방 유지 문제를 놓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남부연합이 1865년 남북 전쟁에서 패한 뒤, 민주당은 여러 세대에 걸쳐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에이브러햄 링컨의 공화당이 미국 정치를 지배했습니다. 1912년, 남북 전쟁 종료 이후 최초로 남부 출신 민주당원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민주당은 더욱 진보적 성향을 띄게 됩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1920년에 비준되는 여성의 참정권을 지지하였습니다. 대공황 시기가 되어서야 민주당은 정치적 지배권을 되찾았고, 프랭클린 델러노 루스벨트 대통령은 연방 정부의 역할을 확대합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정책에 따라 많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유권자가 민주당을 지지하게 됩니다. 1960년대 중반, 린든 존슨 대통령은 민권법을 통과시켰고 더 많은 정부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민주당과 공화당은 대통령직을 번갈아 가며 차지했습니다.

바로 이전 민주당 출신 대통령인 بارак 오바마는 미국 최초의 아프리카계 대통령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 보험 분야에서 정부 역할을 확대 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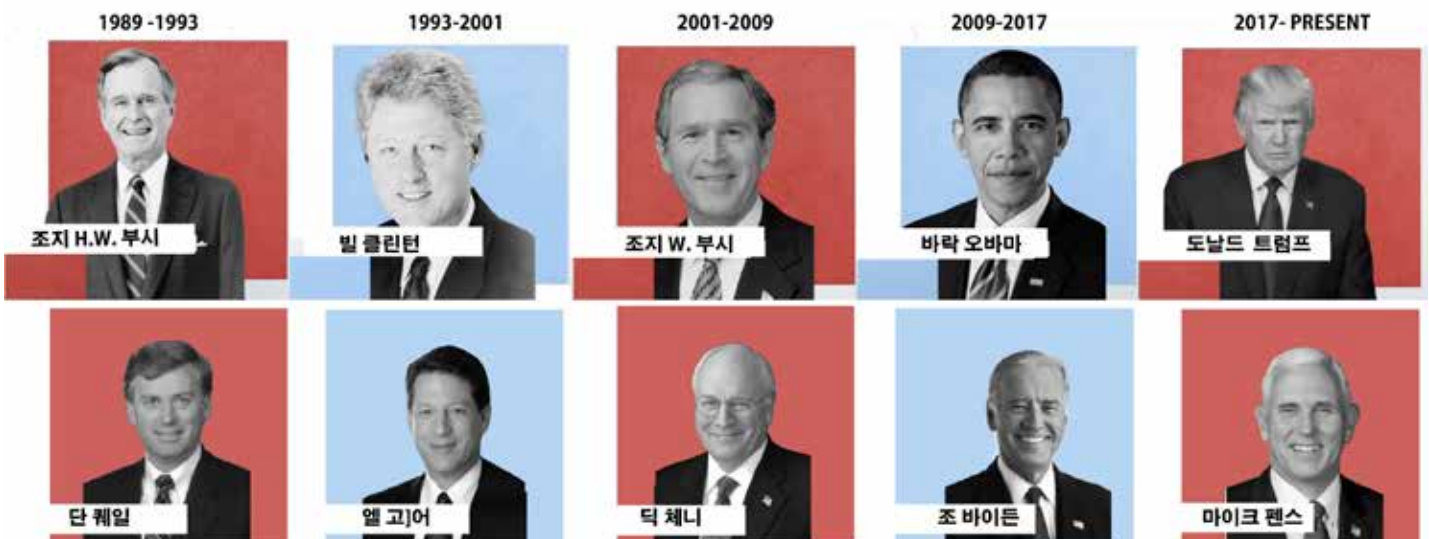
공화당은 1854년 북부인들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이들은 좀 더 강력한 연방 정부를 원했고 서부 주에서의 노예 제도 확장에 반대했습니다. 당의 두 번째 대통령 후보였던 에이브러햄 링컨은 1860년 대통령으로 선출돼 연방을 유지하고 노예제도를 폐지합니다. 남북전쟁에서 북부가 승리한 이후, 공화당은 70년 동안 미국 정치를 지배합니다. 이 기간에 공화당은 연방 정부 권한을 확대합니다.

또한 당 지도자들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 15조를 지지합니다. 대공황과 함께 공화당은 정치적 지배권을 잃습니다. 민주당은 경제 붕괴와 공화당의 친기업 정책 때문이라며 비난합니다.

이후 50년간 민주당이 대부분 미국 정치를 주도하면서 공화당 출신 대통령은 한 명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공화당은 대공황 시기에 시작된 민주당의 연방 정부 확대 움직임에 보수적인 대응을 전개합니다. 당의 정책 변화로 인해 많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민주당 쪽으로 돌아서고 대신 많은 남부 백인이 공화당을 지지하게 됩니다.

1980년대 공화당 소속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정책은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얻습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민주당과 공화당은 대통령직을 번갈아 가며 차지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은 연방 정부 역할을 더욱 축소하고 좀 더 우파적인 사회 정책을 추진합니다. ■



‘한인 최초’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자 - 샘 박

올해는 민주당 전당대회 사상 최초로 한국계 정치인이 연설자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샘 박 조지아주 하원의원이 민주당 ‘차세대 지도자’로 뽑혀, 둘째 날(18일) 일정에 참여한 건데요. 오종수 기자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민주당 ‘차세대 지도자’ 중 한 명으로 전당대회에서 연설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박)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 장난 전화인 줄 알았습니다. 친구가 전화해서 농담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조 바이든 선거대책본부에서 걸려온 전화가 맞다는 걸 알자마자, 정말 감사하면서 겸손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물론 저를 (차세대 지도자로) 인정해주시고, 연설 기회를 주신 것은 영광이었습니다.

기자) 제가 알기로 한국계 정치인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연설하게 처음입니다. 맞나요?

박) 제가 아는 바도 그렇습니다.

기자) 그런 사실이 박 의원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박) 물론입니다. 저는 한국계 미국인의 유산을 가진 것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저의 사례가 다른 한인 지도자들이 일어서도록 북돋고,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정치 무대에서나 민간 분야에서나 가릴 것 없이, 한국계 미국인들이 계속 지도자로 나서는 걸 보고 싶습니다.

기자) 이번 전당대회 연설에서 박 의원이 제시한 메시지는 뭐였나요?

박)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게 주제였습니다. 특히 현시점의 미국에서는 더욱 더 그렇거든요. 너무나 무능한 리더십을 보고 있으니까요. 리더십이 실패했다는 점은, 코로나 사태로 매일 1천 명 넘는 미국인이 죽어가고 있는 데서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We the People)’이 지도자를 선택할 기회를 가졌으니까요. 민주주의 제도 아래서 우리가 가진 그 자유를 반드시 행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지도자들을 뽑아야 합니다. 이 엉망인 상황에서 벗어나 우리가 전진하려면, 반드시 투표해야 합니다.

기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당대회가 가상 원격으로 진행됐는데,

이런 일도 사상 처음이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 환상적으로 잘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코로나 사태 와중에 모든 사람의 안전을 지키는 일의 중

요성을 민주당이 보여줬습니다. 저희(민주당)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현실을 (공화당처럼) 애써 부정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리더십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본을 보여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모두 함께 발언에 참여하는 영상을 처음 보고, 정말 잘 해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접근성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인터넷만 있다면 누구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렇게 중요한 정치 행사를 시청하고, 동참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기자)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미국민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주제는 뭘니까?

박) ‘투표하라’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투표해야 합니다. 트럼프(대통령)와 공화당에서는 (우편 투표 확대 반대 등으로) 투표하기 최대한 어렵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한 표가 집계되도록 모든 힘을 다 해야 합니다. 투표소 앞에 줄 서서 기다리든, 부재자 투표를 하든, 조기 투표를 하든, 당신의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당 후보를 뽑아주십시오. 우리가 전진하려면 그래야 합니다. 이웃과 공동체를 생각하고, 우리를 통합시킬 사람을 뽑아주십시오. 트럼프(대통령)는 계속해서 우리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라놓으려고 하지만, 우리에게에는 하나로 뭉칠 기회가 있습니다.

기자) 북한 이야기를 해보죠.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어떤 게 달라질까요?

박) 바이든 후보의 대북 접근법을 보자면 첫째,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계 지도자들을 하나로 모을 것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아래서 우리가 봐 온 것은, 독재자와 친하게 굴었던 한 사람 뿐입니다. 사진 찍는 게 단지 목적이었던 거죠. 아시다시피 북한 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지정학적 현안입니다. 저 한 사람이 거기에 대한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오만이고 거짓말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의 말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역내 동반국가들의

<10페이지로 계속>

트럼프 캠프 자문위원 - 리사 신

〈리사 신 박사는 뉴멕시코 로스 알라모스에 계신 검안 의사이시며 UNM병원에서 봉사하시는 신경 일 목사 따님 이시다. (편집부)〉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선거대책본부 관계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후보에게 소수인종 정책과 공약 등을 조언하는 ‘아시아태평양 자문위원회(Asian Pacific American Advisory Council)’를 이끌고 있는 리사 신 박사인데요. 한국계 이민 2세로 검안 의사인 신 박사는 지난 2016년 전당대회 찬조 연설자로 나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일정에 맞춰, 오종수 기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자) 트럼프 후보가 처음 대선에 도전한 4년 전과 비교하면, 지금 공화당 내 분위기가 어떻게 다른지?

신) 두 가지 큰 차이가 있어요. 우선 2016년에는 (오바마 행정부 때여서) 집권 여당의 이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직 대통령이 저희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훨씬 강력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과 비교해서 말이죠.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또 한 가지 큰 차이점은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2016년에는 트럼프 후보가 대규모 유세를 즐기치게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종류의 활동이 지극히 제한됐다는 게 다릅니다. 전당대회도 그런 영향을 받았고요.

기자) 2016년 전당대회 연설자로 무대에 오르셨잖아요, 그때 제시했던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신) (한국에서 온) 이민자의 딸로서 겪은, 개인적인 경험을 털어냈어요. 저희 부모님이 가졌던 ‘아메리칸 드림’에 관해 이야기했죠. 저희 부모님은 미국에서 ‘더 나은 미래’와 ‘자녀들을 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믿으셨거든요. 힐러리 클린턴(당시 민주당 후보)이 당선되면, 이런 ‘아메리칸 드림’의 직접적 위협이 될 거라는 메시지를 제시했습니다. 왜냐면, 트럼프가 미국을 위한 최선의 후보라고 저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을 ‘인종차별주의자’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민자들을 위한다고 말씀하시는 근거는 뭡니까?

신) 미국에서는, 소수계 인종이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있었다면 꿈꿀 수도 없는 성공을 (미국에선) 할 수 있는 겁니다. 트럼프(대통령)의 의제와 정책은 그걸 뒷받침하고 강화해주는 내용으로 채워졌어요. 소수계 주민들이 일어나서 도약하도록 정부가 돕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그냥 제 말이 아니라, 실적을 보세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뒤 사상 최저 (소수계) 실업률을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한인들이 하는 사업체들이 얼마나 번창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만 봐도, 저 같은 한국계를 포함한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찍어야 할 강력한 이유가 됩니다.



기자) 그 밖에,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더 정부를 맡아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신)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미국에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수많은 미국인이 기회를 잡고 번창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지금은 이걸 기반으로, 앞으로 더 많은 걸 이뤄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50년 만에 가장 위대한 경제를 건설했잖아요. 감세와 일자리 창출로 수많은 가정이 엄청난 혜택을 받았고요. 이런 흐름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한 가지만 놓고 봐도,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훨씬 나은 후보입니다.

기자)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캠프에서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끌 계획과 전략은 뭔가요?

신) 맞습니다. 저희가 뒤지고 있죠. 그런데 2016년 당시 기억하세요? 모든 여론조사에서 힐러리 클린턴(민주당 후보)이 이길 거라고 예측했잖아요. 심지어 투표 당일 저녁까지도, 많은 방송국이 (클린턴 후보의) 대승에 관해 보도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여론조사들이 죄다 잘못됐던 거죠. 저희(공화당)의 승리 전략은 격전지로 분류되는 주들(battle ground states)에 집중하는 겁니다. 현재 트럼프 캠프는 자금도 넉넉하고요, 굉장히 질서 있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 저희는 2020년 다시 한번 승리하기 위해 격전 주들에 (광고 등으로)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기자) 현재 선거캠프 자문위원이기도 하시지만, 이와 별도로 ‘트럼프 한인 지지 모임(Korean-Americans for Trump)’ 대표를 맡고 계시잖아요. 어떤 모임인가요?

신) 2016년 대선 때 (민주당 쪽에서) ‘힐러리 한인 지지 모임’, ‘버니 (샌더스) 한인 지지 모임’ 같은 것들이 생겨난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저희도 트럼프(당시 후보)를 위해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인터넷 사회연결망을 통한 자발적인 지지 활동으로 시작했어요. 그 뒤로 조직과 활동이 공고해지면서, 캠프에 선거 광고 비용도 대고, 투표 안내 책자 등도 발간했습니다. 수많은 언론에 기고도 했고요. 이 모임은 선거 캠프의 공식 조직은 아닙니다. 다만 ‘한인들이 트럼프를

‘6.25 영웅’ 백선엽 장군 현충원 안장... “한미동맹 창시자”

〈아래의 글은 VOICE OF AMERICA에서 보도한 고 백선엽 장군에 관한 보도입니다. 전문 그대로 전재 소개 합니다〉

‘6.25 전쟁 영웅’으로 평가받는 한국의 고 백선엽 장군의 안장식이 오늘(15일) 한국 국립묘지인 대전 현충원에서 엄수됐습니다. 백 장군은 6.25전쟁 당시 전투복과 같은 모양의 미군 전투복을 수의로 입고 영면에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6.25 전쟁 영웅’이라는 평가를 받는 고 백선엽 장군의 영결식이 15일 오전 7시 30분쯤 서울아산병원에서 엄수됐습니다.

서욱 한국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린 영결식엔 유가족과 정경두 한국 국방부 장관,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 로버트 에이브럼스 미-한 연합사령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역대 육군참모총장, 보훈단체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등 한국의 주요 정치인들도 자리했습니다.

군악대의 비장한 연주와 함께 육군 의장대원과 미군이 위패와 영정, 고인이 생전에 받았던 태극무공훈장과 미국 은성무공훈장, 태극기로 감싼 백 장군 관을 들고 영결식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에이브럼스 미-한 연합사령관은 추도사에서 고인을 “철통같은 동맹의 창시자 중 한 분”으로 평가하며 “한국전쟁 지상 전투의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암울한 순간에서 유엔군 전력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국군을 이끌었고 한국군의 기초를 다진 분”이라고 추모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어 “전우여, 안녕히 가시라(Farewell, friend)”는 인사와 함께 유엔군사령부와 미-한 연합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를 대표해 조의를 표했습니다.

역대 연합사령관들도 추모 영상을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존 킬리 전 사령관은 고인이 “미-한 동맹을 지원하고 장병들을 사랑하는 군인 중의 군인이었다”며 “백선엽 대장의 전설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월터 샤프, 제임스 셔먼, 빈센트 브룩스 등 다른 전임 사령관들도 잇따라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장의위원장인 서 총장은 조사에서 “작년 5월 장군님을 예방했을 때 더 강한 육군을 만들어 달라시던 그 말씀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다”며 “장군님이 사랑하는 전우들과 함께 피와 땀과 눈물로 지킨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다짐했습니다.

1사단장을 지낸 송영근 예비역 중장은 추도사에서 6.25 전쟁 당시 다부동 전투 승리를 이끌었던 고인의 공로를 상기하며, “당시 패배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고 저나 여러분도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1사단은 고인이 6.25 전쟁 당시 이끈 부대입니다.

백 장군 장남인 백남혁 씨는 “아버지가 모든 전우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했다”고 회고했습니다.

[녹취: 백남혁] “이제 아버님의 그 꿈은 이뤄졌습니다. 저 하늘에서

모든 전우들과 만나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부인 노인숙 여사를

시작으로 주요

참석자들의 헌화와

분향이 끝난 뒤

영구차는 봉송대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안장식이

열리는 대전현충원으로

향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대전현충원 장군 2묘역에서 열린 안장식에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도 참석했습니다.

안장식에서 경북 다부동 전투 참전용사와 장병 등이 백 장군 묘에 허토했습니다.

허토용 흙은 고인이 생전에 의미 있다고 생각한 다부동 등 6.25 격전지 8곳에서 퍼 온 겁니다.

6.25전쟁 당시 전투복과 같은 모양의 미군 전투복을 수의로 착용한 고인은 유족의 눈물 속에 영면에 들었습니다.

지난 10일 100세 일기로 별세한 백 장군은 불과 33세 나이에 1953년 1월 육군 대장으로 진급, 한국군 역사상 최초의 4성 장군이자 ‘6.25 전쟁 영웅’으로 추앙받았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 독립군 토벌대로 알려진 간도특설대에서 2년 남짓 복무한 이력 때문에 한국 내에선 백 장군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날 안장식 현장에선 찬반 민간단체들이 대치해 한때 긴장된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지만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



지난 2013년 VOA Korea소식:

뉴멕시코 사격장에서...

백선엽 예비역 대장,

미 8군 명예사령관 임명

주한 미 8군 사령부는 오늘(2013년 8월29일) 판문점 인근 ‘뉴멕시코 사격장’에서 기념식을 열고 한국군 출신 백선엽 예비역 대장을 명예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미 8군 사령부는 백 예비역 대장이 한국 육군 역사상 최초의 4성 장군으로 6.25 한국전쟁 당시 탁월한 전공을 달성해 명예사령관으로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곧은 미8군 작전부사령관은 백 예비역 대장은 한국 전쟁의

발체기사

“백선엽 장군 존경합니다” 펜스 부통령의 편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27일 고(故) 백선엽 장군의 부인인 노인숙(96)여사에게 위로 서한을 보냈다고 한미동맹재단이 28일 밝혔다.

한미동맹재단이 노 여사의 허락을 받아 공개한 서한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국민을 대표해 백선엽 장군의 별세에 깊은 애도와 함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적었다.



이어 “다부동 전투에서 백 장군이 보여준 용기와 리더십은 여전히 전설과도 같다”며 “우리는 그를 전쟁 영웅 그 이상으로 존경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 장군은 그의 삶 전체를 국가에 헌신한 진정한 애국자였다”고 했다.

펜스 부통령은 “백 장군은 최초 한·미동맹을 형성하고 오늘날의 한·미동맹이 있도록 큰 역할을 했다”며 “미국은 한·미동맹의 정신과 한·미동맹의 바탕이 된 양국의 희생을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30여 년 전 별세한 펜스 부통령의 부친 에드워드 펜스는 6·25 전쟁 참전용사다. 1952년 미 육군 제45 보병사단 소위로 참전, 폭참힐 전투에서 용감하게 싸워 1953년 동성무공훈장을 받았다.

펜스 부통령은 2017년 4월 방한해 “아버지는 한국에서 복무하며 한국군과 나란히 전투에 참여했다. 이런 한·미 간 파트너십은 가족과 나에게 큰 자부심”이라며 “아버지가 받은 훈장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고 소개했다.

실제 그는 부친의 훈장과 훈장증, 훈장을 받는 모습이 담긴 사진 액자를 부통령 집무실에 두고 있다. 그는 방한 기간 중 아버지과 전투를 치른 중부전선도 둘러봤다고 한다.

발체 출처: 중앙일보, 7-28 ■

영웅으로 정전협정 이후 미-한 장병들에게 실무적인 후견인 역할을 해왔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미 공화당 전당대회 CEO는 한국계 이민 1세대 마샤 리 켈리

미 공화당 전당대회는 한국계 이민 1세대인 마샤 리 켈리(Marcia Lee Kelly·50) 총괄 대표(President and CEO)의 지휘하에 진행되었다. 공화·민주 주요정당의 전당대회는 4년에 한 번씩 열리며, 2년 전인 2018년 11월 백악관은 당시 백악관 관리행정국장인 켈리 씨를 선정하면서 “아시아계로서 공화당 전당대회 CEO를 맡기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켈리는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390명의 백악관 업무 직원들의 총괄 지휘하는 관리행정국장을 비롯한 백악관 내 여러 요직을 역임했다. 4월엔 퍼스트 레이디 멜라니아 트럼프의 선임 고문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2016년 평창패럴림픽 때에는 미국 공식 대표단의 일원으로 방한했다.

경제 주간지 포천(Fortune)은 지난 2월 켈리가 맡은 백악관 관리행정국장의 자리와 관련 “백악관 웨스트윙(대통령 참모 공간)이나 대통령 집무실(오벌 오피스) 근처에 자리를 얻고자 하는 이들은 모두 켈리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며 “하도 줄을 많이 서서, 켈리는 대기 번호를 나눠주는 기계까지 제공받았다”고 전했다. 주차공간에서부터 온갖 예산을 관리하다 보니, 켈리는 “그때 대통령 주변의 돈 많고 강력한 사람들에게 서로 기분 상하지 않게 ‘노(no)’하는 기술을 습득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화당 전당대회를 켈리에게 전적으로 일임하고, 정례적으로 브리핑을 받는다. 켈리는 “트럼프와 같은 이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면전(面前)에서 얘기한다”며 “공격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내게는 신선하다”고 포천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은 “요점을 주고는, 그 결정을 집행하는데 뭐가 필요한지 알고자 한다”며 “기분 상하거나 개의치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켈리는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 카운티 출신으로 한국인 이민가정 5남매 중의 막내로, 2000년 루돌프 줄리아니 당시 뉴욕시장 시절 시장실에서 처음 공직 생활을 했다. 그는 뉴욕시 특별행사(Special Events) 담당 국장을 맡으면서, 줄리아니의 시장 취임식은 물론 1996년 뉴욕 양키스의 월드 시리즈 우승 뒤 종이 조각들을 하늘에서 흩뿌리는 티커 테이프 퍼레이드, 1만2000여명이 참석한 1997년 9월 뉴욕의 영국 다이애나 왕세자비 추모 행사, 26시간 전세계로 생중계 진행된 뉴욕시 밀레니엄 행사 등을 총괄 지휘했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밀레니엄 행사 때 줄리아니의 강력한 추천으로 연을 맺었다고 한다.

발체출처 :조선닷컴 20.8.24 ■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 로마 국제영화제 다큐부문 최고작품상

다큐멘터리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이 국제영화제에서 다큐 부문 최고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동유럽으로 이주한 약 1만 명에 달하는 북한 고아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로마국제영화제는 매달 전 세계 국제 영화들을 장르별로 분류해 최우수 작품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의 아이들'은 1950년대 북한 김일성 주석이 정치권력을 다지는 과정에서 한국전쟁 고아들이 어떻게 희생됐는지 재조명한 영화입니다. 다음은 김덕영 감독의 설명입니다.

[녹취: 영화 중 김덕영 감독 목소리] “냉전이 강화되던 시기, 사회주의 종주국 소비에트 연방은 체제와 이데올로기를 대외적으로 선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유럽 각국에 전쟁 고아들을 위한 학교와 기숙사의 설치를 명령했다. 자본주의 종주국 미국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전쟁의 뒤처리까지도 앞서야 했던 것이다.”

한국 평창국제영화제와 미국 뉴욕국제영화제, 프랑스 니스국제영화제, 폴란드 국제영화제, 도쿄 리프트오프 영화제 등 10여개 국제영화제 본선에 진출한 이 영화가 수상의 쾌거를 이룬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일성의 아이들’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한 김덕영 감독

체코, 헝가리 등에서 현지 취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동유럽에 생존해 있는 북한 전쟁고아들의 친구와 교사 등 11명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또 각국의 기록보관소와 국립도서관 등을 통해 100여 장의 사진과 북한 전쟁고아들이 북으로 돌아간 뒤 유럽으로 보낸 80여 통의 편지, 그리고 이들 고아들의 일상에 대한 옛날 기록필름 등을 발굴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 ■



폴란드 프와코비체 국립중앙제2학원에서 발견된 북한 고아들의 사진.

1950년대 북한 전쟁고아들의 동유럽 이주의 역사를 15년째 조사해 온 한국의 김덕영 감독은 지난해 본격적으로 촬영을 시작해 올해 이 영화를 완성했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한반도에는 10만 명의 전쟁고아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 적게는 5천명, 많게는 1만명의 북한 고아들이 동유럽 국가로 이주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 동유럽 여러 나라에 ‘현지 위탁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분산 수용됐습니다.

김덕영 감독은 지난 2004년 이후 루마니아와 폴란드, 불가리아,

시

나의 통곡

마실을 가지 않았어야 했다
꼭 그렇게 집을 비웠어야 했던가?

몸에 구멍이 나 있었는데
완강히 괜찮다는 말에
차일 피일 미루며
오늘까지 왔다

그밤에 무섭게 휘몰아치던 바람
천둥을 동반하고 번개까지 거들며
무엇에 그렇게 화가 났던가?
거의 모두가 쓰러졌다
빼만 앙상했던 어머니도

톱으로 잘려지는 몸에서
텅 빈 구멍들이 보인다
그 분의 영양분 나에게 쏟아져

폭풍우에 휩쓸리는 나의 통곡
땅으로 땅으로 땅속 깊숙이
끊임없이 쏟아진다

산유/레베카 브레이버맨/Rebecca Braverman
목사, 목회선교학박사/ 폴라 신학교, 캘리포니아

레베카 브레이번의 수필, 미주 크리스찬 문학상 수필부문 수상

미주크리스찬 문인협회가 2020년 제 34회 공모한 작품 모집에서 당선된 우수한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알버커키에 오랫동안 계셨으며 2015년 뉴멕시코 한국학교 교장으로 봉사하셨고 현재 뉴저지주에 거주하고 계신 레베카 김·브레이버번 목사의 '죽음과 시작'이란 글이 수필부문에서 당선되었습니다. 레베카 김 목사는 현재 남부뉴저지통합한국학교 교사로서 그리고 뉴저지 체리힐 장로교회 협력사역자이며 브레이버번 센타 원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필명으로 '산유'를 쓰고 계신 레베카 김 목사는 2019년 '문학미디어'의 공모에 '고향'외 4편의 시가 당선되어 신인 문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목사는 뉴멕시코한인회 16대 회장을 역임하신 김영신씨의 언니가 되시기도 합니다. 아래의 글은 '죽음과 시작' 수필이 글로 쓰여진 계기를 '광야의 소리' 편집부 요청으로 레베카 김 목사께서 적어 보내주신 글입니다.



제가 텍사스, 달라스에서 체플린으로 일하면서 병상에서 죽어가는, 아니면 죽은 사람들의 가족들을 위로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이러면서 어느 순간 부터 시체는 저한테 자연스럽게 다가왔고 이들이 먼저 떠나지만, 그러기에 슬프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내가 가야할 고향 이기에...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나의 마지막 장례식을 준비할까 하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이 수필에서 표현되어지는 죽음의 장례식은, 죽은이의 살아온 날들에 대한 기념, 축하, 경축행사, 셀레브레이션(celebration)입니다. 동시에 그를 편안하게 그 다음의 쉼 곳으로 보냅니다. 이때 저 건너편에서 새로운 생명 '시작'이 걸어 오고 있습니다. 이 수필은 2021년 5월 '미주 크리스찬 문학' 32집에 실리게 됩니다. ■

트레비스공군기지 제60지원단

멜빈 E. 맥스웰 주니어 대령 사령관으로 취임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의 송정옥권사님, 맥스웰집사님 아드님이신 멜빈 E. 맥스웰 주니어 대령께서 캘리포니아 트레비스공군기지에 있는 60th Mission Support Group의 Commander 로 7월14일 취임했습니다.



트레비스공군기지의 웹사이트에 의하면 멜빈 E. 맥스웰 주니어 대령은 제60 임무 지원 그룹의 사령관으로서 그는 토목, 통신, 계약, 물류 준비, 인력, 보안, 서비스를 담당하는 6개 중대에 속한 1,900명 이상의 병력을 지휘하며 135,000명의 기지 커뮤니티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는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예산과 50억 달러 이상의 자원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맥스웰 대령은 1997년 미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했고 지상·항공운송·물류 준비부대에 근무했으며 페덱스 익스프레스와 산업 인턴십을 마치고, 유럽 미 공군, 미 교통사령부, 국방물류국, 공군본부 등에서 임무를 맡아 수행 했고 2018년 9월 대령으로 승진했습니다.

트레비스공군기지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에 있는 페어필드에 있으며 미 공군의 기동(모빌리티)군단에 속한 부대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부대이며 미공군의 군수품과 병력을 수송하는 대형 수송기 C-5 Galaxies, C-17 Globemaster III, KC-10 Extenders을 운용하는 비행대를 가진 공군기지입니다. ■



Acupuncture & Herbs Pain Clinic
Holistic & Alternative Medicine



장상순 한의원
Dr Sangsoo Chang
 DOM, DSOM, Dipl OM, Dipl Ch, Lac

보험회사 Authorized Providers:
 Cigna, Presbyterian, Multiplan, Optum,
 United healthcare, New mexico health
 connection, Out of net work, Molina.

2617 Juan Tabo NE #B
 Albuquerque
 New Mexico 87112
www.drchang505.com

505-255-0878
 505-710-7504
sangsoonc@gmail.com

국내 소식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 그의 출생지는 알버커키!

포브스지는 아마존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잭 베조스(Jeff Bezos)의 재산은 1,800억 달러로 추산되어 베조스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선정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온라인 커머스 이용이 급증한 효과가 그대로 반영되어 아마존의 분기 매출이 전년대비 40% 증가하고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하원 위원회는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과 같은 거대한 회사들이 너무 크게 성장함으로 인해 독점기업체가 되어 시장 경쟁을 해치고 있지는 않는 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아마존의 최고경영자인 베조스가 지난 7월 미 하원 독점 금지 소위원회와 인터넷을 통한 가상 증언을 하게 됐는데 증언에 앞서 자신을 소개할때에 자신은 뉴멕시코 알버커키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출생과 관련된 어린 아기때의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알버커키저널 신문에 났다.

베조스(56)는 1964년 알버커키에서 당시 17살의 엄마에게서 태어났다고 의원들에게 말했다. 고등학교 재학생이 임신을 했음으로 학교에서는 자기 엄마를 퇴학 시키려고 했으나 외 할아버지께서 교장선생을 찾아가서 애걸하여 간신히 퇴학을 면하고 고등학교를 마칠 수는 있게 허락 받았지만 졸업식때 단위에 올라가서 졸업장 받는것은 허락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의 어머니는 교육면에서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대학으로 진학했으나 야간 수업에 등록했는데 어머니는 아이를 수업에

데려올 수 있도록 허락 해주는 교수의 강의만을 선택해서 공부했다고 말했다. 아기 베조스 어머니는 “책가방과 기저귀가방, 두개의 가방을 챙기고 자기를 업고 캠퍼스를 다니며 대학생 생활을 했던 어머니의 고충”을 말했다.

그 당시 쿠바 이민자 미겔 베조스가 UNM에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던중 그의 어머니를 만나 결혼하게되었고 미겔 베조스가 4살이었던 자신을 입양시켜 양아버지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말하길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선물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받은 선물중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엄마, 아빠”라고 말했다.

그의 전기에 따르면 그의 가족은 양아버지 미겔이 뉴멕시코 대학을 졸업한 후 휴스턴으로 이주해 엑손의 엔지니어로 일하게 됐다.

베조스는 의회 증언에서 26년 전 뉴욕 투자회사에서 일하다가 사직하고 초라하게 시작한 아마존의 창업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베조스는 “지구상에서 가장 고객 중심적인 기업을 만들겠다는 장기적인 꿈”을 갖고 아마존을 출발했었다고 말했다. ■



<4페이지에서 계속> 민주당 연설자 샘박

말도 들어야 합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해법을 만들어야가 됩니다.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촉진한 뒤 궁극적으로 (남북한의) 통일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기자)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민주당 전당대회 연사 출신이잖아요. 정치인으로서 개인적인 목표나 계획은 뭐니까?

박) 지금으로선 당장 제게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리더십에 관한 것이거든요. 리더십은 제 지위를 높이려고 더 고위직에 출마한다거나 하는데 있는 게 아닙니다. 지도력은 ‘섬김’입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믿어 주신 지역사회를 섬기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주민들을 위해 싸우려고 공직에 출마했습니다. 특히, 몸이 아픈데도 의료보건 체계에 접근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 투쟁하려는 겁니다. 여기 조지아주에 (건강보험 등) 의료보건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아직도 50만 명이 넘습니다. 저는 그분들에 대해 매우 강한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암 투병을 하시다가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나마 어머니께서 (오바마케어 덕에) 공공 건강보험 처치를 받

을 수 있었다는 점이, 제가 현실 정치에 참여한 최우선 동기였습니다.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둔 겁니다. 직위나 자리를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저를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자세로 정치를 계속 하다보면 제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열린 태도로 보려고 합니다. ■



CUDDY & McCARTHY, LLP
Attorneys at Law
www.cuddymccarthy.com



우리 로펌은 1917년에 근간을 둔 다양한 분야의 법률대리를 담당하는 종합법률사무소로서 산타페와 알버커키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한 노영준(Jun Roh) 변호사에게 연락 주십시오.

201 Third St. NW Suite 1300,
Albuquerque, NM 87102.
(505) 888-1335

식당 소개

한미식당개업

지난7월 알버커키에 한중 식당이 새로 개업했다. 식당 이름은 HANMI (한미)이며 위치는 환타보(Juan Tabo Blvd)와 메놀(Menaul Blvd)에서 한 블럭 남쪽에 있으며(2120 Juan Tabo Blvd. NE) 업소 주인은 Yummy House를 운영하셨던 부부, Jimmy 와 Carol이시다. 광야의 소리 독자에게 케롤씨와의 온라인 인터뷰를 통해서 식당을 소개 하기로 한다.

질문 1: 알버커키의 많은 한인들이 야미하우스의 음식을 즐겨 왔었는데 식당주인이 바뀐다는 소식을 오래전에 들었던것을 기억합니다. 얼마동안 영업을 하셨나요?

답 1: 11년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질문 2: 저의 생각으로는 식당 비즈니스에서 퇴직하신것으로 알았는데 어떻게 식당을 새로 열게 됐나요?

답 2: 퇴직하고 싶었던것은 사실이였습니다. 그러나 퇴직하기에는 아직 이르고 우리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것을 알게 되어 식당을 다시 시작 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가 힘든 시기였지만 지역사회와의 여러 분께 봉사하는 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3: 중국계 미국인이신 부부의 배경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답 3: 저(Carol)는 중국 동북부에서 왔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두분 모두 음대 첼로교수였습니다. 저 역시 아리조나주립대학에서 첼로로 석사학위를 얻었습니다. 제의 남편(Jimmy)은 한국 인천에서 3대에 걸쳐 중국식당을 운영해온 화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우수한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질문 4: 첼로 전공을 하셨는데 지금도 첼로 연주기회를 갖고계시나요?

답 4: 식당 일로 바빠서 연주를 할 시간이 많되지만 음악은 언제나 저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질문 5: 한미 식당의 메뉴중에서 자랑하실만한 음식은 어떤것입니까?

답 5: 몇가지를 든다면 한국식 탕수육(Korean style sweet and sour pork),칸풍기(Fried Chicken with garlic sauce), 짜장면(soybean paste noodle), 짬뽕(spicy seafood noodle)등 이 되겠습니다. 고객손님중에서 어떤분은 고향 향수를 달래주는 음식이라고 평을 해주시는 분도 계신데 반가운 평 입니다.

질문 6: 한인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지요.

답 6: (야미하우스식당을 운영해온) 지난 수년동안 한인 여러분께서 저희 식당을 애용해주셨던 것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관계를 이어가면서 저희도 여러분을 위해 최대한으로 노력할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신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부분(답 6)은 원문 영문으로도 보시겠습니다.

Answer 6: For the past many years Korean community supports our business very much and we kept very good relationships with local Korean people. We really appreciate it. I hope we can continue to support the Korean community with our best. Thank you so very much for giving me this chance to be connected with the Korean community.

Carol ■



생전 처음 겪는 일



김기천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태어나서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라며 달라스에 계신 김정근 목사님께서 교회 안부를 묻는 전화를 주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 내에 예배는 물론 모든 모임이 중지되자 염려가 돼서 전화를 하신 것이지요.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전염병으로 인해 교회가 문을 닫았던 일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김정근 목사님은 텍사스 샌안토니오에서 목회를 하시다 오래전에 은퇴를 하시고 달라스에서 사모님과 살고 계십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발발하자 지난 3월에 뉴멕시코 주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지침에 따라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문을 닫도록 하였지요. 교회 예배나 모임도 가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직장도 집에서 근무를 하도록 권고하였고 모든 모임들도 금지하였습니다.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서로 2미터 간격을 유지하도록 권고했지요. 매일 발표되는 코로나 환자와 사망자 숫자가 사람들의 마음을 위축시켰고 거리에는 차가 거의 다니지 않았습니니다. 예방에 필요한 마스크나 손세정제 등은 구입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재기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생활에 필요한 휴지나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쌀 또한 구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일은 저 또한 목회하면서 처음 겪는 일이었지요. 교회 임시회의를 통해서 처음 한 달 동안 주중 모든 예배는 쉬고 주일 예배만 인터넷 영상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주일이 되면 인터넷 영상 예배에 필요한 소수의 인원 즉 반주자, 통역 전도사님, 방송실 권사님 등만이 교회에 오셨지요. 여러 순서가 생략된 예배에서 카메라만 바라보고 설교를 하려니 저 또한 몹시 어색하였습니다. 카메라를 의식하고 설교를 하다가 실수하면 식은땀이 나기도 했지요. 한번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연세가 드신 미국인 부부가 들어와서 당황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코로나 사태가 벌써 6개월이 다 되어 가면서 우리의 교회생활을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속회나 각종 모임들은 Zoom을 통해서 모이고 예배는 Youtube를 통해서 방송을 하며 교회나 교인 소식은 카카오톡을 사용하여 알리고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드리던 주중 새벽 예배는 시간을 아침 7시로 변경하여 교회에 출석해서 드리는 예배와 Youtube 생방송으로 집에서 드리는 예배를 겸하고 있습니다. 영어 회중들을 위해서는 모든 Youtube 생방송에서 한승우 전도사님이 동시통역을 자막으로 내보내고 있지요.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주일 예배는

김수진 선생님의 인도로 매주일 오전 10시에 Zoom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의 문은 닫혔지만 인터넷이라는 기술의 도움으로 예배는 중단 없이 계속 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전에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친교를 했던 때가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직접 대면해서 나누는 친교와는 비교가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인터넷을 통한 Zoom, Youtube, 카카오톡 등으로 지속적인 만남을 가져왔습니다. 아침 예배 경우 실제로 교회에 오셔서 드리는 분들과 집에서 Youtube로 동참하시는 분들의 숫자를 보면 코로나 상황 이전보다 출석 인원이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8월 말부터는 교인 수의 40퍼센트까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정부에서 허용하였지만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정이나 연세 드신 분들은 여전히 조심해야 할 상황입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에 교회 문을 닫게 만들었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지혜롭게 대처해서 오히려 신앙이 배로 성장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집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이때에 온 가족들이 신앙적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가정예배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기술적인 문제를 극복해야겠지요. 즉 컴퓨터, 핸드폰, 인터넷 등을 사용할 줄 모르면 집에서 예배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커다란 화면을 사용하여 예배를 드리면 현실감이 더합니다. 요즘은 Chromecast 등으로 핸드폰 영상을 커다란 TV에 연결시켜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매일 이메일로 보내드리는 예배 정보에 있는 Youtube 링크를 클릭하시면 컴퓨터 화면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 뿐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도 극복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경우에는 정숙한 분위기에서 드리는데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다보면 분위기가 산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예배를 위해서는 집 안에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지정된 예배장소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예배장소가 식탁이라면 중앙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 앞에 성경책을 펼쳐놓아 예배처소로 구별합니다. 또한 찬송을 부를 때에는 교회에서 부르는 것처럼 큰 소리로 함께 부릅니다. 인터넷 예배인 경우에는 예배시간을 가족들 시간에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코로나 사태에 지혜롭게 대응하여 위기를 신앙성장의 기회로 삼읍시다.



내가 떠날 적엔



이정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수필가

죽음은 만인을 평등하게 만든다. 그런데 사람은 수많은 원인으로 명을 다하지 못하고 불시에 죽으며, 제명을 다한 사람도 마지막에는 흔히 병으로 간다. 수명이 길어진 요즘에는 오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죽을 복’을 타고났기를 바란다. 무병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 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저녁 잘 먹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아침에 죽어 있기를 소원한다.

나이 들어 몸이 쇠약해지고 때가 되면 죽는 일이 과거에는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이었다. 그런데 늘어난 수명이 핵가족 시대를 가져오고, 의학의 발전이 사람을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 나머지 죽음이 병원 안에 갇히고 말았다. 살던 집에서 간호를 받다가 갈 수도 없고, 죽어가는 과정에서 겪는 혹독한 고통을 자기 마음대로 피하지도 못한다. 허다히 가족이나 친구와 격리되어 외롭게 죽음을 맞이한다.

세계 도처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마지막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병이 들어서만도 아니다. 최근 일본의 한 노작가는, 안락사로 세상을 하직하고 싶으니 그에 관해 논의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언제 어떻게 가도 이별의 슬픔은 있는 것, 주위에 피해를 주면서 오래 살고 싶지는 않다는 것이고 생의 마지막에 품위를 지키고 싶다는 것이다.

질병과 연관된 죽음이 논란을 일으켜, 생의 마지막에 이른 환자들의 간호에 관한 법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어떤 치료도 도움이 되지 않을 때 받는 환자의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덜어 주며, 마지막 소원을 들어 주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법이 시행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죽는 과정을 자의로 끝내는 일은, 자신의 최후를 자신이 정한다는 의미에서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미국 오레곤 주에서는 1997년부터 의사의 도움을 받아 죽을 수 있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 뒤 워싱턴 주에서도 2008년에 법을 제정하였고, 잇따라 여섯 개 주에서 말기에 달한 환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뜰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뉴멕시코 주의 앨버커키 시의회에서는 2018년 5월초에 생애 마지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장 일치로 통과시켜, 최종 결정자인 주의회와 지사에게 넘겼다. 거기서 승인되면 모두 아홉 개 주에서 시행되어, 미국 인구의 약 20퍼센트에 적용된다.

생의 마지막에 이른 환자들의 간호에 관한 법은 아직 그

명칭조차 통일되어 있지 않아 조력사, 조력 자살, 안락사, 존엄사, 생애 마지막 선택 등 여러 가지로 불린다.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일이라 인륜 및 종교와 얽히고, 살아 남은 가족이나 친구에게 격심한 충격을 주기도 하며, 잘못 이용될 수도 있어서 찬반 양론이 뜨겁게 대치된다.

환자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법이지만 실행하는 데는 어려움도 따른다. 생명을 끊는 약의 처방은 흔히 가족이나 친구의 극심한 슬픔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고약한 병에 걸려 시달리는 것을 지켜본 가족에게는 아주 의미있는 행위이다. 사람의 마지막 소원은 예우해야 하고, 남은 가족이 마음의 평화와 위안을 얻을 수 있다는 등의 이점이 있다. 비탄에 젖은 가족들이 나중에는 사랑하는 사람의 임종 시 소원을 들어 주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려 큰 위안을 얻기도 한다.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죽음에 임했을 때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려고 치사약의 처방을 요구하는 것이다. 막상 요청해 놓고 가져가지 않는 사람도 있다. 처방의 요청은 환자의 간호를 개선해 주기도 하고, 가족들에게 귀중한 경험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환자에게 생의 마지막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며, 그 과정에 가족을 참여시킬 수도 있다.

법의 요지는 어떤 치료도 도움이 되지 않을 때 받는 환자의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덜어 주는 데 있다. 치명적인 약을 처방 받아 두었다가, 준비가 되면 자신이 목숨을 끊는다. 그럼으로써 이겨 내기 힘든 고통을 견뎌야 하는 두려움 없이 살다 갈 수 있다. 약을 먹은 뒤 약 3시간 이내에 평온한 가운데 죽는 과정을 끝낸다. 잘못 사용될 경우를 대비한 규정도 명확하게 정한다. 미국의 몇 개 주에서 시행되어 오고 있어서, 모두 합하여 40여 년의 경험을 쌓은 법의 안전성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한 남자가 골수암으로 치료 받다가 실패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주의 법에 따라 2017년에 생애 마지막을 선택한 111명 중의 한 사람이었는데, 69세의 나이에 전처가 옆을 지키는 가운데 편안하게 숨을 거두었다는 애절한 사연이 신문에 실리기도 했다. 뉴멕시코 주에서도 이 법이 통과되어, 생의 마지막에 나도 내 품위를 지키고 싶다.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다 죽는다.

황혼에 들리는 저녁 종소리
그 뒤에 밀려오는 어두움이며
내 배에 뚫을 달고 길 떠날 적엔
이별의 슬픔일랑 없기 바라네 (테니스)

마이웨이의 거짓됨

도시어부라는 한국프로를 잠깐 연속으로 본적이있었다. 낚시를 직접 했을때는 십대때 부자집 친구 따라 몇 번 바다 낚시한 것이 다 였기때문에 낚시를 좋아해서라기보다는 프로그램의 배경으로 바다가 자주 나와서 계속 시청하게 되었던 것 같다. 고정 캐스트 은 유명했던 배우 이덕화옹과 입담좋은 국민MC였던 이경규. 이덕화옹은 기분이 상승되면 배경음악으로 자주 Frank Sinatra의 My Way를 틀어달라고 한다. 노래의 하이라이트인 "I did it my way" 에서 이옹은 기분 좋게 따라 부른다. 이옹의 그 세대를 잘표현하는 가사인 것 같달란 생각이 들었다. 나의 아버지뻘 52년생이면 10대에 북침전쟁후의 극심했던 가난의 시절을 나와 급변했던 제3~4공화국때를 거쳐 한강의 기적이라는 시대를 맞이하며 최빈국에서 세계 최고 12번째 경제 대국이 되는 것을 직접 체험하며 목격한 세대이다. 대한민국 건국 위인들의 아들 딸들 세대로서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던 세대였으며 사회의 재구성이란 시점의 출발에서부터 형성된 가치관은 어떻게 보면 성공을 민주화시킨 가치관이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이었다. 어떤면에서 지금 최고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 중국인들의 긍정적인 세계관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새로운 시대적 풍(風)은 아니지만 기독교인으로서 긍정적인 세계관에 걸려있는 성공이란 단어에도 구별되어야 할 부분도 있고 특히 기독교인으로서 이 구분을 확실히 알고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

신학도때 어느 한 친구 목사가 무슨 큰 깨우침이라도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자아실현을 원하신다란 허무맹랑한 소리를 듣는가 하면 어느 목사님들의 모임에서 한 은퇴목사님이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의 고백인 "내가 나 된것은" 이란 제목의 자서전을 배포하는 등 너무自我중심적인 성공을 기반을 둔 신앙의 모습을 보며 부끄럽단 생각이 앞섰을때가 있었다. Self-significance. 자신은 세상에서 어떤 존재감이 있어야 한다는 세계관. 이 가치관 때문에 아이들을 키울때도 무조건적으로 자존감이 중요한 것처럼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대중에게 인문학 전도사이며 지성인으로 알려져 있는 이지성 작가같은 사람들도 같은 기독교인들에게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서슴없이 한다. 비록 지성인으로서 칼빈주의나 기독교의 이해가 너무 단순하게만 나타나고 있어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신학자가 아니라 세부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아니고 또 나를 필요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예: 그냥 교회안에서만 안주하는 것에 대한 경고) 좋은 말이라 생각되었지만 성공이란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비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보였다.

20~21세기중 성공에 대한 제일 큰 거짓 두가지가 크게 나타나 있다. 첫째로는 너가 열심히 일하면 무엇이든 될 수 있다란 야메리칸 드림이고, 둘째로는 더 위험한 메시지이다: 세상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란 꿈(夢)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히 허락하신 소명의식에 엄청난 손상을 입히는 메시지들이다. Henley

한승우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University of New Mexico
전도사/Computer Scientist



의 시(時) Invictus 에서 담대히 선포하는 내용은 "내 운명의 주인이 나!" 라고 외치는 태도가 이 시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Invictus는 평생 하나님께 이를 갈며 무신론자로 산 사람의 집합적 발악이었다. 바로 그 거짓 위에 세워진 성공이란 우상을 숭배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이다. 지혜와 힘과 그리고 능력이란 위에 개인이 최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관을 그대로 도입하여 교회안에서 그리스도 이름 위에 세상의 성공 공식을 똑같이 외치고 있다. 다 타당한 메시지로 들린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요한 1서에서도 세속의 자람은 아버지에게서 온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세속의 자람거리를 만들수 있는 최상의 자리를 가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지성 작가의 말로는 최상의 자리에서 더 많은 선을 이룰 수 있기때문이라고 한다.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부가 많아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 선한 일을 많이한 이유로 타교도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었다. 성경에서도 부자의 현신이 아니라 과부의 몇 안되는 헌금이 나온다. 거짓된 성공의 가치관은 예수가 최고의 대통령이 되라는 가룟 유다의 열심당원들이 추구하는 메시지와 다름바 없다.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 아니면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최고의 자리에 앉아있어서 사람들이 감명받아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

당연히 예수님이 가르치신 талан트의 비유에서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마땅한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하라고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은 근본적으로 소명이란 중심적 요소가 있다. 그것에 감사하고 그 속에서 성화되는 것을 일로 삼는 것이다. 즉 기독교인에게 일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영적인 면이 중심이 되어 그 일에 대한 태도와 질을 결정케 한다는 것이다. 결과중심주의적으로만 보면 평등주의로 흘러가 버린다, 그러나 성서적 인간관은 평등주의적 인간관이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한 탈란트 받은 사람처럼 불평속에 빠지는 말아야 하는 것이 바른 모습인 것이다. 왜냐면 우리가 세운 기준의 성공의 잣대가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일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말이다. 즉, 결과적으로는 세상에 보이기 위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한 성공이란 말이다.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그는 많은 관중들 앞에서 연주를 시작했다. 연주 중 줄이 하나가 끊어졌고 조금 지나 줄 하나만 남기

그렇게는 안 팝니다.

나정자

연합감리교회
은퇴 감리사 사모/ 수필가



멕시코에서 휴가를 지내던 한 젊은이가 길을 가다가 작은 양파 꾸러미들을 쌓아놓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허름한 행색의 한 노파를 만나게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을뿐 아니라 바람이 심히 부는 길가에서 과연 그 양파가 얼마나 팔리겠나 싶어, 가던 길을 멈추고 그 노파에게 물었습니다.

“이 양파 한 줄에 얼마입니까?”

“10센트 입니다.”

“두 줄은 얼마입니까?”

“20센트 입니다.”

“그럼 3줄은 얼마입니까?”

“30센트 입니다.”

“...?”

아니, 이런 바람부는 날, 지나가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은데 조금 싸게 선뜻 빨리 팔아 버리는 쪽을 택하지 않는 이 노파에게,

“그럼 이 양파가 전부 몇 꾸러미나 됩니까?”

“20꾸러미 입니다.”

“그럼 이거 전부 다 사면 얼마에 주실 겁니까?”

흥정하려는 젊은이에게 이 노파의 대답은

“그렇게는 안 팝니다.” 였습니다.

이 바람부는 날, 이 양파를 한꺼번에 다 사 주겠다는데— 얼른 팔고 들어갈 일이지. 아니 이 양파를 다 파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닌 말인가? 무엇때문에 이 바람부는 날, 길가에서 이 고생을 하신단 말일까?

그러나 이 노파는 말을 이어 갑니다.

“내가 이 양파 꾸러미를 놓고 여기에 앉아 있는것은 양파를 한꺼번에 쉽게 팔아 버리려는게 아닙니다. 세상과 연결해 살려는, 내 삶이 옳시다. 가끔씩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속에서 세상을 보며, 일부러 말을 걸고 나눌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바빠요. 그저 빨리 가느라 숨가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때로 내가 생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답니다. 양파를 파는것이 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어울려 살고 싶어서 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웃이 없는 삶은 불구 입니다. 바람부는 날, 양파 꾸러미를 들고 나와 이웃이 되어 주려고 이웃을 찾아 나선 이 노파를 통해서 ‘산다는 것’을 헤아려 보게 됩니다. 이익과 실용이 목적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이익때문이 아니라 고단한 이웃에게 과연 나는 어떻게 몇번이나 이웃이 되려고 해 보았던가?

과연 나는 시편 119편 56절 처럼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곧 내가 주의 법도를 지켰음이니이다” 라는 고백으로 답할수 있는 삶이었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멀쩡한 얼굴을 가린채 향기로운 봄도 무성한 여름도, 뿐 아니라 보구싶은 친구도 가까이 해서는 안되는, 격리된채로 그냥 다 갇혀서 제한받는 섭한 세월입니다. 그럴지라도 바람부는 길목에서 양파를 한꺼번에 쉽게 팔아 버리지 않으 시던 그 노인이 가끔 생각나서 더듬더듬 주변을 더듬어 보게 됩니다.

머지않아 아니, 비록 더딜지라도 얼굴을 가리던 마스크를 벗어버리게 되는 그 날! 그 날에 우리 함께 찬양으로 아름답게 노을지는 저녁을 맞으리라는 생각에 꿀~껌 침을 삼키며 다짐합니다. 그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넉넉히 분별의 삶을 살아 내리라! 복음의 증인으로 서리라! 할렐루야!

■

관점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스가랴 4장 6절에서도 힘이나 능력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예수님 스스로도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았는데 왜 교회가 세상에서 최고가 되지 못해 안달인지 모르겠다. 세상에서 그렇게 최고가 되고 싶으면 원숭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분리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영적인 기준에 먼저 흡족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

고 다 끊어져 버렸다. 그러나, 파가니니는 아랑곳 하지 않고 계속 줄 하나만을 가지고 훌륭히 연주를 마쳤다. 관중들은 크게 감명하여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파가니니에게 박수를 쳐주었다. 그러나, 파가니니는 그 박수 갈채를 받으면서 만족을 느끼지 않았다. 오로지 저 윗쪽 발코니위에 자신의 선생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로지 자신의 선생님의 인정만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매일 누구의 시야를 중시하고 있는가?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선교의 길



김광철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성도/전직 교수

선교 (mission) 와 선교사 (missionary)란 말은 라틴어 mitto (보냄을 받은자) 에서 유래된 말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보내거나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한다. 즉, 선교사란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할 수 있다.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선교지의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택한 선교의 방법은 아프리카에 가서 직접 이들과 함께 살면서 이들의 삶을 사랑을 통하여 이해하고, 특히 이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재능을 어려운 환경 때문에 알지 못하고 또는 가난 때문에 공부할 수 없는 젊은이들을 노력과 기도로 찾아내어 주님의 사랑으로 의학을 장기간 가르치고 돌보아주면서 이들이 진실하고 훌륭한 의사가 되도록 복음을 전해주는 길이었다. 언젠가는 이들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에티오피아를 위해 복음을 전하면서 병들고 빈곤 속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이 살고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가페의 사랑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불쌍한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화와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주일 후에 있을 출국 준비로 바쁜 이사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광야의 소리에 글을 쓸 수 있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고 감사드리면서 이 기회를 통해서 나의 경험과 생각을 독자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쓴다.

저는 46년 전 한국이 한참 살기 어려웠을 때 한 가난한 유학생으로 태평양을 건너 먼 이국땅인 미국에 오게 되었다. 현재 이곳에 살고있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처럼 저도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겨나가면서 집도 마련하여 아이들을 키울 수 있었고 아이들이 성장 후에는 독립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었고, 결국에는 오늘의 비교적 편안한 삶을 이룩하여 이렇게 공기 좋고 아름다운 알버커키에서 살 게 되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난날의 수많은 일들, 특히 어려웠을 때의 기억들을 생각해 볼 때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은 결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어 이 세상에 내 보내신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사랑으로 돌보아 주셨는데, 나의 중요한 임무, 즉 자식들을 키우고 독립할 때까지 돌보아 주는 일이 끝난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귀한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심각한 문제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결국, 제가 받은 은혜와 능력을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에티오피아는 한국전쟁 때 유엔군으로 한국을 도와준 16 국 중 하나로 그 당시에 아프리카의 유일한 우리의 우방국이였다. 하지만 2000년도의 세계은행의 통계에 의하면 평균 개인당 일년 수입 (GDP) 이 \$650 로 세계에서 3번째로 가난한 나라로 알려져 있고, 2019년에는 \$1122로 현재 아프리카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을 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여러 부족들 간의 역사적으로 깊이 뿌리박고 있는 분쟁과 전쟁의 분위기가 아직도 남아 있어 정치적으로 불 안정된 상태에 있다. 하지만 최근에 노벨평화상을 받은 현 수상의 노력으로 인해 나라가 통합되어 가고 국제적인 원조와 투자가 점차로 높아가고 있는 추세라고들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의 의료시설 및 정부 보조는 지극히 미약한 상태다. 2018년 에티오피아 인구는 1억이 넘는데 그 당시 현직 의사 수는



1만도 못되어 의사 한 사람당 1만 명 이상의 사람을 돌보아야 한다는 통계가 나온다. 게다가 의사들도 큰 도시로 집중하는 바람에 지방에는 의사가 거의 한사람도 없는 그야 말로 무의촌이 수도룩하다. 실 예로 2018년 내가 6개월 동안 선교 활동으로 에티오피아에 가 있을 때 수차에 걸쳐서 무의촌 진료를 따라간 적이 있었다. 수도 아디스에서 약 3시간 떨어진 촌이었는데 우리가 탄 진료 버스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약 400명 정도의 주로 흰옷을 입은 원주민 환자들이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다. 대부분이 어린아이들을 안거나 데리고 온 여인들이거나 노인들로 구성되었는데 아이들은 대부분 맨발로 넘마 같은 옷들을 입고



여선교회 마스크 500장 에티오피아 선교 지원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의 여선교회에서는 지난 7월 30일 마스크 500장을 에티오피아에서 선교하시는 김광철교우께 보내기로 하여 부인 되시는 한영숙집사에게 전달했다. 에티오피아에 먼저 가 계신 김교수는 8월중순 미국으로 돌아와 이사준비를 하여 부인과 함께 8월30일 에티오피아로 떠났다. ■



(사진: 여선교회 회장 윤태자 권사와 한영숙 집사)

있었고 온몸에는 피부병으로 괴로워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환자들의 상당수가 3시간도 더 걸리는 거리를 새벽부터 걸어왔다고 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것도 한정된 의사 진이 이동 진료 식으로 방문한 상태에서 만성병을 정확히 진단하기도 힘들고 계속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 2가지 이상의 약들을 받아 가는데 긴 줄을 서가면서 몇 시간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불행한 사람들을 같은 지구상에 공존하게 하실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동시에, 이 나라는 무엇보다도 많은 의사를 배출하여 전국에 골고루 분배 함으로써 병들어 고생하면서도 전혀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계획하고 하루바삐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을 절실히 하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어렵게 공부해서 의사가 된 젊은이들을 이렇게 살기 어려운 지방에 내려보내어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아 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그때부터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내게 에티오피아에 있는 조그마한 기독교 의과대학에서 2018년 4월부터 6 개월 동안 기초의학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고 2020년 4월 말에는 대부분의 외국 선교사들이 갑작스럽게 퍼진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본국으로 돌아갈 때에는 저에게 확장으로 일하면서 봉사할 기회를 주셨다. 저희 부부는 주님의 부르심이라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에티오피아로 떠나기로 했다.

주님께서 보잘것없는 저에게 지난 2년 동안 너무도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을 나의 창조자로 믿고 나를 지금까지 항상 지켜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아들 예수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함으로써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심지어는 영생의 길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삶은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 믿고 감사드리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 세상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기로 했다.

에티오피아 선교 동영상

에티오피아 선교에 관하여 김 광철 교수가 8월29일 아침 예배시간에 발표해 주신 내용이 동영상으로 담아 유튜브에 올려져 있다. 유튜브의 교회주소 www.youtube.com/kumcabq/ 로 들어가서 “에티오피아선교” 제목의 영상을 열든가 아래의 동영상 링크 주소를 인터넷 주소에 입력해서 볼 수 도있다. www.youtube.com/watch?v=XDITuGhcWZs ■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구든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선교지란 반드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의 방법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문을 열어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한다. ■

(사진 2장 첨부: 에티의 무의촌에서 환자들이 기다리는 광경 과 봉사장면)

영어이야기 10

이상목

전직 교수

아마추어무선사(K7MOK)



몇달째 계속되는 coronavirus pandemic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이 알게 모르게 변화된것을 느낄수 있습니다. 예방차원에서 아직도 physical distancing (거리 두기), hand washing(손씻기), wearing a mask in public(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은 전염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할 기본사항입니다. 또한, 최전선 (front line)에서 싸우고있는 의료진(medical staff), grocery store에서 일하시는분, 그곳에 운반해주는 drivers, 농작물을 재배하고 가축을 키우는 농부들과, 우리가 먹을수있게 가공해주는 일에 종사하시는 분등, 여러분야의 많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끼지 않을수 없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자칫 우울해 질수도 있는 시기에, 혼자 지내는 것이 더 편한사람들도 있지만,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대화를 자주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필자의 취미중 하나인 Amateur Radio를 즐기는 아마추어무선사(Ham)들은 무선교신외에도, off-the-air로 Skype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필자가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들을 보면, Host격인 일본 규슈에 위치한 구마모토의 쥘루다 데즈오 (JG6DEA) 씨는(위의 사진 오른쪽), 그곳 비행장에서 VIP 담당으로 일하였고,

사물현상에 생각이 깊은 분인데, 영국을 지칭할때엔 꼭 UK 라고 말합니다.

Australia의 Charles Savage(VK3ZD)씨는 송순천선수가 1956년 권투에서 은메달을 땀던 Melbourne(멜보른)에 살며, 해상구조(marine rescue)에 일익을 담당하며, 호주의 광야인 outback에서 자동차여행을 즐깁니다. Florida에 사는, 한국에서 군복무를 50년대말 인천 월미도에서 drone 계획에 참여했던 Barry Levey (K2TGS) 씨는 얼마전 증손녀를 보았고 tennis를 아직도 즐기는 80대 중반의 ham입니다. 또한사람의 호주친구인 Gary James(VK2FGZA) 씨는, Sydney 와 Brisbane(브리즈번) 중간에 위치한 조그마한 마을인 Coolah시에 사는데, 빵을 만드는 baker/pastry cook으로 오랫동안 일해와, 지금도 빵은 집에서 만들어먹고, 재주있는



handyman 입니다. 이곳이 한창 여름일때, 호주는 겨울이기에 sweater입고 털모자도 쓰고나오는, 남반구 (Southern Hemisphere)에 있기때문에 달모양도 우리와는 반대로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민요 "The Londonderry Air" 또는 "Oh Danny Boy" 로도 불리는 전원적이고 서정적인 노래 "♪ 아 목동들의 피리소리들~은 ♪"의 나라, Ireland (아일랜드)의 Tom McGrath (EI7HT) 씨는 아직도 활발한 아마추어 무선활동을 하는 분으로 Ireland의 수도인 Dublin에 위치한 Tallaght에 살고 있습니다 (독사진). 그리고 중학교 선생님이셨던 은퇴한후, 경상북도 문경의 오봉산농장에서 몸에좋은 blueberry를 비롯한 채소류를 재배하며 지내는 Jae(이재영)씨 등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오는 blueberry는 크기도 크고 아주 담니다. 이분의 고향은 경북 상주인데, 꽃감으로 유명하며, 경주와 더불어 경상도로 불리는 어원의 유서깊은 마을입니다.



지금은 요리도 배우고, 동네 어린이들을 위해 영어교실에서 영어를 가르치는데, 세계 여러나라 Ham 들과 친분이 많은 분입니다. 자전거로 한국여행도 했던 분입니다. 영국의 Yorkshire에 살고있는 65년 경력의 아마추어 사진작가 (amateur photographer) 이기도 한 James Smith (G6AAK) 씨는 British Railways, International Harvester 등에서 일하여 engineering 과 computer경험이 많고, 여러

이분을 통해 한국에 관한 소식을 종종 들곤 합니다(아래사진 오른쪽).



요즘엔 아무래도 COVID-19에 관한 이야기를 필두로, 날씨, 정치적 사회상과 미래, 기술, 지리, 역사, 음식, 주변이야기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는 보통 영국(England)이라고 하지만, 약간 복잡합니다. 통칭 Great Britain이라고 부르는 UK (United Kingdom)의 공식명칭은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로, England(London), Wales(Cardiff), Scotland(Edinburgh), Northern Ireland(Belfast)의 4개 country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은 capital city입니다. UK중 Northern Ireland만 따로 떨어져 글자 그대로 Ireland의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UN Security Council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permanent member)으로 영국은 UK로 대표됩니다. 그러나 World Cup 축구는 FIFA에 따로 등록이 되어있어서 UK팀은 없고,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로 각자 따로 참가합니다. Olympic은 단일팀으로 나가, Olympic code로 영국은 GBR(Great Britain)입니다(한국은 KOR, 일본은 JPN, 호주는 AUS). Ireland는 수도가 Dublin인 독립국가인데, 12세기부터 실질적인 영국의 일부로 Great Britain과 합쳐 the United Kingdom and Ireland(simply United Kingdom)으로 이어오다, 1922년 영국으로 부터 떨어져 나왔습니다. 영어와 다른 Irish 언어가 있지만 국민 대다수는 영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미 언급했듯이 Ireland 북쪽 일부는 Northern Ireland로 UK에 속합니다. 지도를 보면 Ireland와



The four countries of the United Kingdom

영국본토 사이에 Isle of Man이라는 조그마한 섬이 있는데, 이 섬과 영국 남쪽에 위치한 조그마한 두개의 섬, Bailiwick of Guernsey와 Bailiwick of Jersey는 자치권은 있으나 주권(sovvereign authority)은 없는, 소위 말하는 The Crown Dependencies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UK나 Ireland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방은 UK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아시는 영연방(Commonwealth of Nations)은 54개의 member로 구성되어있는 하나의 국제기구로 엘리자베스(Queen Elizabeth II) 여왕이 수반(head of state)으로 있습니다. 영연방의 하나인 호주(Australia)는 세계에서 6번째로 큰나라로 수도는 Canberra(캔베라)이며, 구어체로 호주사람을 Aussie라고 부릅니다. Australia는 Latin어의 Terra Australis에서 온 말로 "southern land"란 뜻입니다. 현대인류(Homo Sapiens)가 분류되어 나왔다고 여겨지는 Australopithecus(오스트랄로피세쿠스)는 남아프리카(South Africa)에서 화석이 처음 발견되었기에, 학명은 남쪽을 뜻하는 australis를 사용하여 "southern ape"(남쪽의 원숭이)란 뜻입니다. 인구가 별로없는 내륙의 사막지대(desert)를 포함한 방대한 지역을 outback이라 하며, 원주민은 Aborigine(애버리진)이라 부릅니다. 미국인들이 은퇴지로 따뜻한 남서부지방을 선호하듯이, 호주도 겨울이 따뜻한(mild winter), 동쪽해안 중간쯤에 위치한 Brisbane 지역으로 은퇴를 많이합니다. 호주엔 직선으로 세계에서 제일 긴 철도가 있는데, 길이가 무려 478 km입니다(경부선은 약 417 km임). 기관사는 영국이나 호주에서는 train driver라고 부르지만,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engineer라고 부릅니다. 기관차는 locomotive 또는 engine으로 부릅니다. 호주의 북쪽은 열대지방으로,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섬인 New Guinea(뉴기니아)와 마주보고 있고, Solomon제도가 북동쪽에 있습니다. 호주의 북쪽과 New Guinea의 서쪽에 위치한 East Timor(동 티모르)는 2002년에 독립하였는데(Timor섬의 서쪽 반은 Indonesia 영토임), 국가전체가 남반구에 있는 유일한 Asia국가입니다. 호주를 비롯한 New Guinea, New Zealand, Solomon Islands, Micronesia, Polynesia, Hawaii는 Oceania주(대양주)에 속합니다. 좋은소식을 기대하며, 안녕히 계십시오.

<5페이지에서 계속> 트럼프 캠프자문-리사 신

지지한다', 이런 목소리를 널리 퍼뜨리는 모임입니다.

기자) 그렇다면 그 모임은 오직 선거운동이 목적이고, '한인 정치력 신장' 같은 과제에는 관여하지 않는 건가요?

신) 물론 그런 활동도 합니다. 한국계 미국인들이 정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장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시사·정치 현안에 대해서도(한인들이) 자세히 알도록 권장하는 활동도 진행 중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공화당 전당대회 특집방송, 트럼프 대통령 재선 캠프 자문위원인 리사 신 박사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신 박사가 언급한 소수계 실업률 자료를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노동통계청(USBL)이 아시아계 미국인을 별도 집계한 2000년 1월 이후 2.7%가 가장 낮은 수치였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16년 12월에 2.6%를 거쳐, 이듬해 12월 2.4%까지 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

중국 안후이성에서 900여 곳의 삼자교회 십자가가 철거돼

BITTER WINTER는 중국의 종교적 자유와 인권에 관한 온라인 매거진이다. 지난 8월23일 루안 기자의 글을 소개한다. 비터 윈터는 8월 6일 자로 중국 동부 안후이(安徽)성에서 올해 초반 4개월 동안 250여 개 관영 삼자교회(Three Self Churches)의 십자가가 철거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새로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올 상반기에 그 성(省)의 656개 관영 개신교 예배소에서 추가로 십자가가 철거돼 그 총수는 900곳을 넘는다.

안후이성은 중국에서 두 번째로 기독교인 인구가 많은 곳으로, 주로 루안(六安), 푸양(阜陽), 쑤저우(宿州), 및 추저우(滁州)시에 집중되어 있다. 당연히 이런 도시들은 강제 십자가 철거에 큰 영향을 받았다. 최신 집계에 따르면, 1월에서 7월 사이 루안시에서 271개, 푸양시에서 168개, 쑤저우시에서 106개, 추저우시에서는 98개 삼자교회의 십자가가 철거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병부(蚌埠)시, 화이난(淮南)시, 마안산(馬鞍山)시 및 허페이(合肥)시의 266개 개신교 예배소에서도 십자가가 철거되었다.



4월, 푸양시 타이허(太和)현의 종교사무국에서는 한 삼자교회에 십자가를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신자들이 불복할 경우 교회를 폐쇄하겠다고 위협했다.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이에요. 십자가가 철거되면 어떻게 다른 건물과 구별할 수 있겠어요?” 한 신자가 한 말이다. 집회에 1,000명의 신자를 수용할 수 있는 푸양시 잉둥(潁東)구의 한 삼자교회 역시 4월에 십자가가 철거되었다. 관리들은 신자들에게 십자가 철거 캠페인은 국가 정책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교회가 십자가 철거를 거부한다면 신자들은 최저 생활 보장금과 연금 그리고 빈곤 구제금 같은 복지 혜택을 잃게 되고, 자녀들은 장래 취직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한 신자의 설명이다. 4월 28일, 인부들이 마안산시 한산(含山)현에 위치한 한청(含城)교회의 십자가를 철거했다. 현지 통일전선공작부 부장은 진행 상황을 감독했다. “통일전선공작부 관리들은 정부 건물보다 높은 십자가들이 국가 기관을 가리기 때문에 모두 철거되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기업체처럼 보이는 교회들만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되죠. 시진핑은 기독교를 ‘중국화’하려고 교회에 서구 십자가는 허용하지 않아요.” 한 신자가 비터 윈터에 한 말이다.

그 신자는 또 정부 관리들이 그 교회의 장로에게 ‘십자가 철거에 저항하는 건 정부에 저항하는 것’이라며 경고했다고 밝혔다. “우리 교회 십자가가 다 철거될 것을 생각하니 슬퍼요.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상징이지만 누가 감히 중앙 정부의 명령에 불복하겠어요?” 그 신자가 덧붙인 말이다.

다른 신자들 역시 수백 명의 경찰에 저항할 수 없어 무력감을 느낀다. 5월 12일, 마안산시 당투(當塗)현 정부는 링윈산(凌雲山)



기독교회의 십자가를 철거했다.

“그날 새벽 2시경에 현(縣) 정부는 3대의 대형 크레인을 반입하고, 수백 명의 경찰을 파견했지요. 그들은 교회를 차단하고 차량과 보행인들의 접근을 막았어요. 그리고는 묶어 놓은 쇠사슬을 자르고 교회 안으로 밀고 들어갔어요. 한 노(老)신자가 그들을 막으려 나섰다가 양손을 다쳤어요.” 한 신자가 그날 새벽에 일어난 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 여성은 관리들이 앞서 4월 20일에 십자가를 철거하려 했지만 신자들이 간신히 철거를 막았다는 말을 덧붙였다. 그 후 교회 집사들과 노(老)신자들은 순번제로 22일 동안 교회를 지켰다. 하지만 십자가 철거 전날 밤, 경찰은 자신들의 계획을 시행하려고 교회 책임자를 밤새 구금했다.

2020-08-23루 안 (魯安) ■



푸양시 잉둥구 우장(烏江)진의 한 삼자교회에서 십자가가 철거될 때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신자들의 모습

뉴멕시코주 한인 교회 안내

갈릴리 장로교회 (Albuquerque)

김민순 목사 (505)975-0322
 주일예배 시간: 오후 1:00 pm (예배 후 점심식사 교제)
 어린이주일학교 시간: 오후 1:00 pm
 토요새벽예배 시간: 7:00 am
 주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lbuquerque, NM87112
 교회 웹사이트: www.galileeabq.com

라스 크루세스 침례교회 (Las Cruces)

김재태 목사(972)-822-1239
 주일예배 시간: 10:30 am
 새벽예배및 기도회 : 5:30am(mon-sat)
 금요일예배및 기도회: 7:30pm-10pm
 주소: 2395 N Solano Dr., Las Cruces, NM 88001

라스 쿠르세스 장로교회 (Las Cruces)

유평산 목사 (915)329-3451
 주일예배 시간: 10:30am
 주소: 200 E. Boutz rd, Las Cruces, NM88005

로스 알라모스/산타페 한인 교회 (Los Alamos, Santa Fe)

김석훈 목사(505)699-4775
 주일예배 1부 시간: 11:30 am
 주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예배 2부 시간: 2:00 pm
 주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a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웹사이트: www.santafekorchurch.net

미국장로교 알버커키한인장로교회 (Albuquerque)

이명길목사 (505)730-3614(hand)
 주일예배(2부): 오전 11:00, 영어예배(1부): 오전 9:00
 수요성경공부: 오전 11:00(사택)13804 Spirit Trail Pl.NE ABQ
 목요기도회: 오후 7:00
 예배처: 13804 Spirit Trail Place NE Albuquerque, NM 87112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 (505)-803-7716
 주일예배 (Korean Worship) 11:00 am (Sunday)
 영어예배 (English Worship) 9:00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Youth/ Zoom) 10:00 am (Sunday)
 새벽기도회 6:30 am (Tue-Sat.)
 주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웹사이트: www.kumcabq.com
 www.facebook.com/kumcabq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Albuquerque)

윤성열 목사 (505) 331-9584
 주일예배 시간: 오전 9:00 am / 오전 11:00 am
 새벽기도회 5:45 am (Tue-Fri)
 수요 예배 매주 수요일 7:00 pm
 주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NM

알버커키 한인 천주교 공동체 (Albuquerque)

민명희 스텔라 사목회장 / 이성희 요한 총무/기획부장
 주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532 Vermont St NE, Albuquerque, NM87110
 소공동체(화,오전), 성령기도회(수,저녁)
 기도회: 매주 토요일 아침 09:00
 장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St. Frances Hall
 Contact : (505)-503-9846
 기도회 회장: 루피나 장경림 자매님
 웹사이트: cafe.daum.net/abq-catholic

주님의 교회 (Albuquerque)

The International Church of the Foursquare Gospel
 김의석 목사 (505) 903-2297
 주일예배 시간: 오후 2:00 pm
 새벽기도회 6:00 am (월~토)
 성경공부 매주 목요일 10:00 am(교회)
 *Women's English Bible study 격주 금요일 10:00am
 *English Bible conversation group for young adults and UNM students 매주 일요일 1pm @ church.
 주소: 12120 Copper Ave.NE,Albuquerque,NM 87123

클로비스 한인 교회 (Clovis)

이성희 목사 (575-791-1453)
 Korean Full Gospel Church of Clovis
 405 Connelly St. Clovis, NM 88101
 주일예배: 12:00pm 수요일 11:30am
 금요일예배: 7:30pm
 아침기도회: 7:00am(월, 화, 목, 금)

화밍톤 한미 침례교회 (Farmington)

신경일 목사 (505) 453-5461
 주일예배: 12:00 pm (한국어) 1:00 pm (Indian 영어)
 주소: San Juan Baptist Assoc.
 1010 Ridgeway pl., Farmington NM 87401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알버커키 Albuquerque		식당 Korean Restaurant	식품점 Korean Grocery	자동차정비 Auto Repair
----- 건축/페인트 Painting ----- 1st Choice Painting Mr. Han Cho /조한욱 1113 Lawrence Dr., NE ABQ, NM 87109 (505-228-0393) ----- 공인회계사 CPA ----- MTM Accounting Service 문만길 회계사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 ----- 교회 Church ----- 가톨릭 공동체: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621 Vermont St., NE, ABQ, NM 87110 (505-652-4627) ----- 갈릴리장로교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BQ, NM87112 505-975-0322 -----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601 Tyler Rd NE ABQ (505-803-7716) -----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3315 Tower Rd SW ABQ (505-331-9584) ----- 알버커키한인장로교회 13804 Spirit Trail pl. NE ABQ (505-730-3614) ----- 단요가 Dahn Yoga ----- 알버커키505-797-2211 커티우드505-792-5111 산타페505-820-2211 다운타운 505-262-2211 이스트마운트505-286-3535 www.dahnyoga.com ----- 리커스토어 Liquors ----- Casa Liquor 1649 Bridge Blvd. SW (505)247-2525	Kelly Liquors #2 5850 Eubank NE (505)291-9914 Kelly Liquors #2 5850 Eubank NE (505)291-9914 Kelly Liquors #5 6124 4th St NW (505) 828-1133 Kelly Liquors #7 1418 Juan Tabo NE (505)292-4520 Kelly Liquors #8 11816 Central SE (505) 299-3366 Kelly Liquors #9 1903 Coors SW (505) 873-4477 Kelly Liquors #10 4312 Coors SW (505) 877-2777 Kelly Liquors #14 6300 San Mateo Blvd NE Suite R (505) 797-9966 ----- 변호사 Law Firm ----- 노영준 변호사 Cuddy & McCarthy LLP 201 Third St. NW Suit 1300 Albuquerque NM 87102 (505)888-1335 jroh@cuddymccarthy.com ----- 부동산 Realtors ----- 김영신 Yong Shin Kim: Prudential Realtors (505-321-7695) 이준 June Lee Ready Real Estate (505-730-6178) ----- 세탁소 Dry Cleaners ----- Kitch Cleaners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 Laundromate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505-266-3231)	----- A-1 한식 Cafe 6207 Montgomery Blvd. NE (505)275-9021 Arirang Restauran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Asian Pear 8101 San Pedro Dr.NE, Ste D ABQ (505)766-9405 Fu-young 3107 Eubank #16 NE ABQ (505-298-8989) Ichiban Japanese: 10701 Coors Rd NW ABQ (505-899-0095)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Korean BBQ & Sushi 4214 Central SE ABQ (505-797-8000) Sakura Sushi Grill 6241 Riverside Plaza NW ABQ (505-890-2838) Samurai 9500 Montgomery NE, ABQ (505-275- 6601) Shogun 3310 Central Ave SE, ABQ (505-265-9166) Tamashi Japanese 6400 Holly Ave. NE ABQ NM87113 (505-717-2457) Yummi Hous 1404 Eubank Blvd NE, ABQ (505-271-8700)	----- A-1 Oriental Market 6207 Montgomery NE ABQ (505-275- 9021) Arirang Oriental Marke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 Salon 47 (황경희 Kay Latham) 5850 Eubank Blvd., NE (505-225-4983) Matthew Lee's Hair Style (홍정희)11901 Menaul NE (505-271-1056) Nob Hill Barber Shop (Sunny 박선희) 3408 Central Ave SE (505-256-0707) Salon 123 7114 Menaul NE (505-872-0301)	----- The Garage 자동차 정비 6441 western Trail NW (505-352-5152) 마이크 조 thegaragenm.com ----- 주택용자 Loan Officer ----- 고산식 Lonnie Ko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505-332-6663) (cell 505-379-0433) 김미경 Mi Kyong Kim 6745 Academy Rd, Suite B Albuquerque, NM 87109 Office: (505) 208-4961 Cell: (505) 379-2944 mikyong.kim@flagstar.com Flagstar Bank ----- 중재서비스 ----- ADR-Mediation Service Sue 1614 Betts Court NE, ABQ, NM 87112 (505-332-9249) ----- 치과 Dental Clinic ----- 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NAPA Family Dental Dr. 윤자정 10820 Comanche Rd, NE Albuquerque, NM 87111 ph)505-323-7700 ----- 호텔 Hotel ----- The Ambassador Inn (조영자) 1520 Candelaria NE ABQ NM 87107 505-345-2547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Stewart P. Ahn 5920
Whiteman Dr. NW ABQ,
NM 87120
(505-897-6889)

태권도 TaeKwonDo

Dynamic taekwondo
academy5850 Eubank blvd
NE B-35 ABQ, NM 87111
Master Jaeshin Cho(505)
271-2000

한의학 Acupuncture

Dr. Chang: (장상순)
2917 Juan Tabo Blvd. NE
#B, ABQ NM87112
(505-255-0878)
sangsoonc@gmail.com

Dr. James D Park: (박달규)
6501 Eagle Rock Ave, NE
Building A-6 87113
(505- 797-5400)
East West Integrated Pain
& Rehab Center

하원/원예 Nursery

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BQ
(505-345-6644)

라스베가스
Las Vegas

치과 Dentist

Sanchez Dental, LLC
Christopher J. Yoon, DDS
(윤종석)
711 6th Street, Las Vegas, NM
87701
(505-425-3435)

라스크루세스
Las Cruces

공인회계사 ACC

Kelly Tax and Account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
5800)
(Fax 575-523-7700)

카페/ 선물 Cafe/Gift

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527-
0098)

교회 Church

라스크루세스 침례교회:
2395 N Solano Dr.
Las Cruces, NM 88001
전화번호(972) 822-1239

병원 Clinic

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56-0200)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Liquors
3850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22-4646

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

미장원 Hair Salon

차진주 헤어(Peal's Place)
800 Trinity #E
Los Alamos
(505)412-5294

교회 Church

산타페 한인장로교회
310 Rover Blvd,
Los Alamos
(505)699-4775

리오란초
Rio Rancho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111 Rio Rancho NE, Reo
Rancho (505-994-8855)

로스루나스/벨렌/
버나리요/보스키팜
Bernalillo/Belen/Bosque
Farms' Los Lunas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Liquors
408 Hwy 550W, Bernalillo,
NM87004
(505) 867-5838

Kelly Liquors
300 N Main st.
Belen, NM87002
(505) 864-2242

Kelly Liquors
395 Bosque Farms Blvd.
Bosque Farms, NM87002
(505) 916-5656

치과 Dental Clinic

Los Lunas Smiles Dr.윤자정
219 Courthouse rd.
Los Lunas NM87031
(505-865-4341)

산타페
Santa Fe

손톱미용 Nails

Tiffany Nails(윤성희)
410 Old Santa Fe Trl. #E
(505)982-6214

변호사 Law Firm

노영준 변호사
Cuddy & McCarthy LLP
1701 Old Pecos Trail
Santa Fe NM87502
(505)988-4476
jroh@cuddymccarthy.com

한국 식당
Korean Restaurant

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

베이커리 Bakery

베이커리 B&B(양성권)
38 Burro Alley
Santa Fe, NM87501
(213)369-1604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De Arco Liquor
(@Solana Center)
915 W. Alameda St.
Santa Fe, NM 87501
(505) 954-1399

Kelly /Liquor Barn
2885 Cerrillos Rd.
Santa Fe, NM 87507
(505) 471-3960

Kelly Liquor
4300 Cerrillos Rd.
Santa Fe, NM 87507
(505) 471-3206

교회 Church

산타페 한인장로교회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87501
(505)699-4775

클로비스
Clovis

교회 Church

클로비스 한인 교회
Korean Full Gospel Church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91-1453)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New Mexico
2020년9'10월호
발행일 : 2020.9/5
발행인 : 김기천 (Rev. Kee-Cheon Kim)
편집부장 : 이경화 (Kyong Hwa Lee)
출판부장 : 권구자 (Koo-Cha Choy)
광고담당 : 신옥주 (Ok-Ju Shin)
발행처: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출판부
Korean UMC in Albuquerque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E-Mail : voiceofnm@gmail.com
광야의 소리 원고는 매 짝수달 25일까지 받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독자 여러분의 좋은 글이나 사진을 보내주
시길 바랍니다. (단 정치적인 글은 사양합니다.)

식당 Restaurant

Bokka 레스토랑(한식)
(박창문, 박미란)
1708 Prince St.
Clovis, NM 88101
(575)-763-2262

Shogun Japanese Steak House
600 Pile St.
Clovis, NM 88101
(575)762-8577

식품 Korean Grocery

K's Oriental Food Store
921 Main St.
Clovis, NM88101
(575)762-8660

치과 Dentist

KidsKare PC Family Dentists
600 Texas St.C
Clovis NM88101
치과의사:박요셉-Sherry 부부
(575)-762-1900

화밍톤
Farmington

교회 Church

화밍톤 침례교회: 511 W. Ar-
rington, Farmington (505-453-
5461)

상점 Store

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

광야의 소리 출판 비용은 광고주의 후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통한 후원에 관해서는 voiceofnm@gmail.com으로 또는
(505)275-9021(광고담당:신옥주) 로 문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A-1 한국식품
한국음식카페 CAFE
A-1 ORIENTAL MARKET
日本の食品
Mon-Sat 10:00am-7:00pm
Closed on Sunday
(505) 275-9021
Website: www.alorientalmarket.com
www.facebook.com/a1orientalmarket/
몽고메리/산페드로 코너
6207 Montgomery Blvd. Albuquerque NM 87109

The Garage AUTO REPAIR
30년 경험의 한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소입니다
2년 연속 엘버카지널 독자가 선정한 최고의 자동차 정비업소
문의사항 (505)352-5152
마이르 조
근무시간: M-F 7:00am-6:00pm (토, 일 휴무)
웹사이트: <http://thegaragenm.com>
주소: 6441 Western Trail NW Albuquerque, NM 87120

一番
Ichiban
Japanese Restaurant
10701 Corrales Rd NW,
Albuquerque, NM 87114
(505) 899-0095
11:00am to 2:30pm (Mon-Sat) for Lunch
4:30pm to 9:00pm (Sun-Thur) for Dinner
to 10:00pm on Friday & Saturday

Korean BBQ
우리집
& Sushi
Hours
Monday-Thursday
11:30am-2:30pm
5:00pm-9:30pm
Friday-Saturday
11:30am-10:00pm
Sunday Closed
4214 Central Ave. SE
Albuquerque, NM 87108
phone (505) 797-8000
www.abqsushiandsake.com

R1 NEW MEXICO
THE FUTURE OF REAL ESTATE
김영신/부동산중개인
Yong Shin Kim
505.321.7695
yongshinkim001@gmail.com
www.R1newmexico.com
505.883.9400